

한-EU FTA 발효 5주년, 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김봉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에서 유럽연합(EU)은 2015년 기준으로 수출 5위(6.6% 점유), 수입 7위(3.6% 점유)를 차지한다. 경제권 규모에 비하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대비하여 수산물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한-EU FTA 발효 이후 최근 5년 사이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발효 5주년에 즈음하여 한-EU 수산물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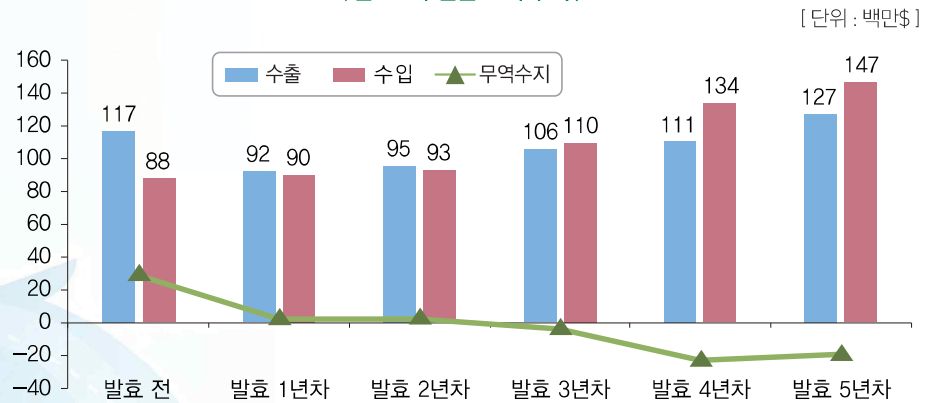
1. 한-EU 수산물 교역 개황

한-EU FTA 발효 5년차인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수산물 교역 규모는 2억 7천만 달러로 발효 전 동기 대비 34.1%, 발효 4년차 동기 대비 12.0% 증가하였다.① 발효 전 대비 수출액은 9.0% 증가한 1억 3천만 달러인 데 반해 수입액은 67.4% 증가한 1억 5천만 달러로 수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FTA 발효 전후 흑자 기조였던 수산물 무역수지는 발효 3년차부터 적자세로 전환되어 발효 5년차에 2천만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발효 후 5년 동안의 교역 추이를 보면 對EU 수입은 발효 후 1~2년차에는 소폭 증가했다가 3년차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對EU 수출은 발효 직후 크게 감소했다가 완만하게 회복되어 발효 5년차에 발효 전 수준을 초과했다.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한동안 지속된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발효 5년차 對EU 수출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으로 많으며, 발효 전 대비 프랑스가 3.4배 증가한 반면 스페인은 70%가량 감소하였다. 수입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등으로부터 많으며, 발효 전 대비 영국이 1.2배, 스페인이 1.6배, 이탈리아가 1.1배 증가하였고 프랑스가 7%가량 감소하였다.

〈한-EU 수산물 교역 추이〉



주 : 7월~이듬해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① 한-EU FTA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양허 일정 상의 한 연차이다. 2016년의 경우 현재 5월까지 통계가 집계되어 있으므로 본고는 동기간 비교를 위해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를 한 연차로 간주하여 기술하였다(즉, 발효 전: '10.7.1~'11.5.31, 발효 1년차: '11.7.1~'12.5.31, 발효 2년차: '12.7.1~'13.5.31, 발효 3년차: '13.7.1~'14.5.31, 발효 4년차: '14.7.1~'15.5.31, 발효 5년차: '15.7.1~'16.5.31).

2. 對EU 수산물 수입

발효 5년차 수입액 1억 5천만 달러 중 어류와 패류가 각각 6천만 달러로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패류는 발효 전 대비 약 1.3배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으며 어류도 30% 정도 수입이 늘었다. 한-EU FTA에 의해 우리나라는 세 품목 이외의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저율관세할당(TRQ)을 배정하였다.^② 이에 따라 주요 수입 품목인 참다랑어, 볼락, 골뱅이 등은 관세 인하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품목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다랑어는 발효 5년차에 4,100만 달러가 수입되어 어류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발효 전 대비 42%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10%의 관세가 3년에 걸쳐 철폐되었고 국제 시세 하락으로 국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③ EU산 참다랑어는 냉동 피레트(fillet) 형태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다랑어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볼락은 발효 5년차에 750만 달러가 수입되어 발효 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EU산 볼락 관세는 10%의 관세율이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5년차인 현재 6.9%이다. 관세 인하와 함께 국내 생산 감소, 식자재용 국내 수요 증가로 EU산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산은 포르투갈산이 대부분이며 전체 볼락 수입량의 46%를 차지한다.

②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징어(냉동)이고, 고등어(냉동)는 9년 유예 후 4년 동안 관세가 철폐된다. TRQ 품목은 기타넙치(냉동)로 1,008톤(5년차 기준)에 한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③ 참다랑어는 지중해 및 남태평양의 자원 회복으로 어획 쿼터가 늘어나 공급이 확대된 반면 최대 소비시장인 일본의 엔화가치 약 세로 일본 수요가 위축되면서 국제 시세가 하락하였다.

이빨고기는 발효 5년차에 발효 전과 비슷한 수준인 280만 달러가 수입되었다. EU산에 대해 10%의 관세가 3년에 걸쳐 철폐되었으나, EU(프랑스)의 어획 쿼터 감소로 수입량은 감소하고 단가는 높아져 전체적인 수입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칠레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빨고기 수입량 중 EU산의 비중이 발효 전 42%에서 발효 5년차에 26%로 축소되었다.

〈한-EU 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증감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발효 5년차 / 발효 전	발효 5년차 / 4년차
수산물	87,708	89,891	92,964	109,540	133,825	146,787	67.4	9.7
어류	48,382	47,115	44,869	46,227	58,130	62,442	29.1	7.4
- 참다랑어	28,622	30,432	25,468	27,474	35,785	40,695	42.2	13.7
- 볼락	3,693	3,191	4,533	4,975	4,410	7,523	103.7	70.6
- 이빨고기	2,740	2,849	1,752	1,790	2,447	2,774	1.3	13.4
패류	26,311	29,499	34,183	45,419	54,797	59,802	127.3	9.1
- 골뱅이	25,737	29,021	34,103	45,417	53,853	59,361	130.6	10.2
수산부산물	6,921	8,299	8,684	10,484	11,444	11,774	70.1	2.9
연체동물	4,286	3,038	3,125	4,047	4,621	6,176	44.1	33.6

주: 7월-이듬해 5월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골뱅이의 발효 5년차 수입은 6천만 달러로 EU산 패류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품목으로도 가장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발효 전 대비 1.3배 증가하여 수입 증가폭도 가장 큰 품목이다. EU산 골뱅이 관세는 20%의 관세율이 6년에 걸쳐 철폐되어 5년차인 현재 3.3%이다.

골뱅이는 어류에 비해 관세 하락폭이 크고 수출경쟁국인 캐나다산의 공급 부족, 국내 가공품(통조림) 수요 증가로 발효 이후부터 큰 폭의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산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대부분 생산되며 이들 원산지가 우리나라 골뱅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3. 對EU 수산물 수출

한-EU FTA 발효 5년차 수산물 수출은 1억 3천만 달러이며 이 중 어류가 1억 달러, 해조류가 1,200만 달러로 대부분을 점하였다. 어류는 발효 전 대비 14.9%, 해조류는 1.8배 정도 수출이 증가한 반면, 패류와 갑각류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한-EU FTA에 의해 EU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최장 6년에 걸쳐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어류, 황다랑어, 새치, 김 등이다.

가장 수출이 많은 기타어류는 대부분 기타다랑어 피레트로 발효 5년차에 7천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이는 발효 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18%의 관세가 철폐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황다랑어와 새치는 5~15%의 관세가 발효 5년차에 0~3%로 감축되었고 수출 실적도 두 품목이 1,300만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황다랑어는 국내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발효 전 대비 70% 감소한 반면, 새치는 다랑어 대체품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발효 전 대비 93% 증가하여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김의 경우 조미김을 중심으로 발효 5년차에 1천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이는 발효 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FTA에 의한 9~18%의 관세 철폐, 다양한 메뉴 개발, 적극적인 판촉 활동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EU 수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증감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발효 5년차 / 발효 전	발효 5년차 / 4년차
수산물	116,597	92,061	95,469	105,826	110,800	127,121	9.0	14.7
어류	88,596	70,175	72,059	73,688	89,485	101,771	14.9	13.7
- 기타어류	26,957	30,459	37,234	41,593	49,470	69,816	159.0	41.1
- 황다랑어	43,053	24,602	20,440	7,899	22,883	13,025	▲69.7	▲43.1
- 새치	6,614	5,669	5,028	10,898	10,846	12,789	93.4	17.9
해조류	4,167	4,051	6,691	9,698	11,081	11,695	180.6	5.5
- 김	2,991	2,731	5,573	8,010	9,447	10,260	243.0	8.6
패류	9,844	8,520	4,979	7,435	4,543	5,154	▲47.6	13.5
갑각류	5,647	4,114	4,089	4,390	2,245	4,829	▲14.5	115.1

주: 7월~이듬해 5월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수입 증가의 영향 및 시사점

한-EU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수산물 수출은 유럽재정위기의 영향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수입은 참다랑어, 볼락, 골뱅이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 증가가 국내 생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참다랑어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국내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이는 세계적인 공급 증가, 국내산의 상품성 하락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EU산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에서 국내산과 경합하는 부분에서 일정한 영향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④ 볼락과 골뱅이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발효 5년차까지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EU산에 대한 관세가 계속 인하되어 수입 증가 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피해보전 대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의 경우 EU의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한-EU FTA를 활용하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요청된다.



④ FTA로 인한 수입 증가의 영향이 일부 인정되어 2015년에 참다랑어에 대해 FTA 직접피해보전제도가 시행되었다.



한-EU FTA 발효 5년^①, 농산물 수입 동향 및 시사점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팀장



① 한-EU FTA 5년차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지만, 이 글에서는 관련 통계 가득성의 문제로 회계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함.

1. 개요

EU는 우리나라 4대 농산물 수입대상국(경제권)으로 미국, 중국, ASEAN 다음이며, 6대 수출대상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한-EU FTA 발효 5년차이고, 7월 1일부터 발효 6년차에 접어든다. 따라서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교역부문의 변화 추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고 보인다.

발효 5년차 농산물 수입액은 36.5억 달러로 4년차(2014년 1월~12월) 대비 4.5% 증가했고, 1년차(2011년 1월~12월) 대비 23.5% 증가했다. 농산물 수출액은 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1년차 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전체 농산물 수입액과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5.0%와 6.3% 감소한 가운데, 對EU 수입액과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최근 對EU 농산물 수출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입	21.6(9.1)	29.6(9.7)	28.8(9.7)	32.3(10.6)	34.9(10.9)	36.5(12.0)
수출	2.4(5.1)	2.8(4.8)	3.1(5.4)	3.0(5.1)	3.1(4.9)	3.4(5.4)

주1) 농산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모두 포함됨.

2)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리.

2. 특혜관세 활용률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그 비중은 12.0%로 이행 1년차 대비 2.3%p 상승했다. 반면, 對EU 농산물 수출 비중은 다소 정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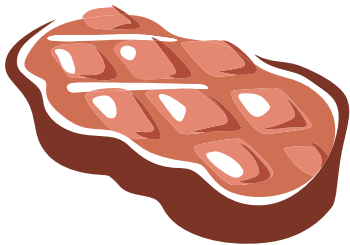
2015년 EU산 농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EU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중 'FTA 대상 품목(양허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32.5억 달러이고, 그중 수입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26.7억 달러이다. 이는 2012년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63.6%)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도 활용률보다는 0.7%p 낮다. 2015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로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2년 대비 11.0%p 상승하였다.



3. 주요 품목 수입 동향

EU산 농산물 수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기호식품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즉, 주요 수입품목에 곡물, 축산물, 유제품 외에도 맥주, 위스키, 포도주 등의 주류,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식용유, 초코렛,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EU산 농산물 수입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수입전환 효과로 곡물 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곡물 주요 수출국과 비교할 때 EU산 옥수수, 보리 등의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결과 2015년 EU산 밀(65만 5천 톤), 옥수수(51만 9천 톤), 보리(4만 5천 톤)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1.1배, 2.6배, 38.7%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EU FTA 이행 1년차(2011년)에 비해서도 각각 11.7배, 1.8배, 2.9배 증가하였다. 곡물의 경우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수출국의 작황 부진으로 수입선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증가가 FTA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돼지고기



닭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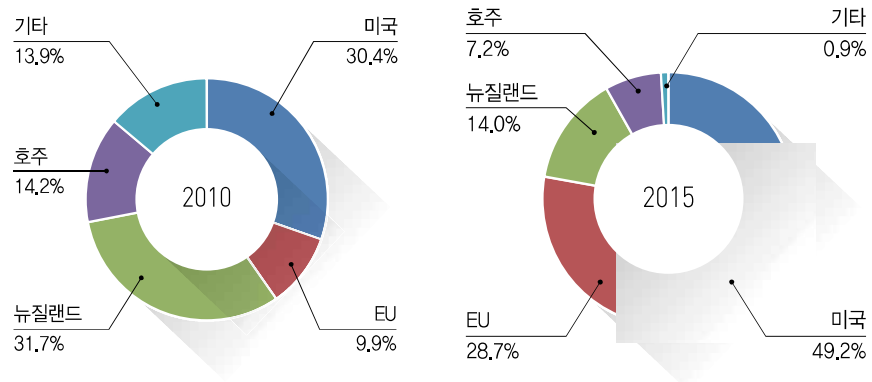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이다. 2015년 국내 돼지 도축두수 증가에 따른 국산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5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이는 EU산을 포함한 돼지고기 국제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국내 수입업자들이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을 늘린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EU산 닭고기 수입량은 약 9천 톤으로 절대량은 많지 않지만, 2014년 대비 20.5% 증가했다. 닭고기 전체 수입량이 감소한 가운데 EU산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2014년 12월 미국에서 시가 발생함으로써 수입선이 브라질과 EU 등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유제품은 대표적인 EU산 수입품목이다. 그중 치즈와 조제분유 수입은 빠른 증가추세로 보였다. 2015년 EU산 치즈 수입량은 3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행 1년차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국내 수요 증가 요인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선 전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최근 국내에서 치즈의 직접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치즈를 원료로 한 식품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EU는 우리나라와 FTA를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국내 유제품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실제로 2010년 국내 치즈 수입시장에서 EU산의 비중은 9.9%에 불과했으나, 2015년 그 비중이 28.7%로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호주는 14.2%에서 7.2%로 하락했고, 뉴질랜드산도 31.7%에서 14.0%로 하락했다.

〈치즈 주요 수출국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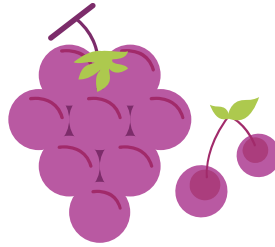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리.

FTA 이행으로 EU산 주류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거나 철폐됨으로써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맥주와 포도주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EU산 맥주 수입량은 8만 3천 k로 전년 대비 43.5% 증가했고, 이행 1년차 대비 2.3배 증가하였다. EU산 포도주 수입량은 1만 9천 k로 2014년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이행 1년차 대비 34.9% 증가했다. 위스키의 경우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나 이행 초기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오렌지



포도

EU산 과실류 중에서는 오렌지, 단일과일조제품, 기타과실, 포도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각 품목의 수입량은 각각 5,065톤, 3,198톤, 3,035톤, 2,930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2%, 56.5%, 8.8%, 58.3% 증가했으며, 그 절대 수입량은 크지 않지만 증가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 수입량은 FTA 이행 1년차 대비 약 9.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오렌지 수입량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EU에서 수입되는 포도는 대부분 건포도이다.



초코렛



비스킷

EU산 기호식품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EU산 초코렛,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수입량은 각각 1만 2천 톤, 1만 1천 톤, 6,682톤, 3,372톤으로 FTA 이행 1년차 대비 각각 57.8%, 4.5배, 78.2%, 36.0% 증가했다.

그 외 국내 수입생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EU산 물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EU산 물 수입량은 3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이행 1년차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EU산 주요 기호식품 수입 동향〉

(단위 : 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초코렛	5,459	7,416	8,467	11,053	11,583	11,702
캔디	1,357	2,007	2,973	3,999	7,418	11,067
비스킷	3,502	3,749	4,387	5,294	6,952	6,682
아이스크림	1,564	2,479	2,782	2,906	3,379	3,372
물	12,216	13,927	23,692	26,013	30,698	31,808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리.

4. 시사점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중 14건이 발효 중에 있다. 이처럼 다수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이행됨으로써 다양한 수입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EU는 비교적 초기에 FTA를 체결한 상대국으로 국내 유제품, 주류 등의 수입시장에서 선점효과를 어느 정도 누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EU와 수출경합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내 수입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동식물 병해충의 잦은 발생으로 곡물, 축산물 등의 수입선 전환이 상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농산물 수급여건 변화도 농산물 수입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공교롭게도 한-EU FTA가 발효되었던 2011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축산물과 유제품이 대량 수입되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국내 관련 산업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수입구조가 고착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축질병과 자연재해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함께 FTA 국내보완대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해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 힘써야 한다. EU산 농산물 수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초코렛,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한 제품 개발이나 품종 개량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